

“소통·화합, 교육·포교 화두로 정진하라”

법전 종정예하, 해인사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서 교시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교육과 포교가 불기 2554년 새해를 맞이한 종단의 '화두'로 제시됐다. 지난 7일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봉행된 신년하례법회에서 법전 조계종 종정예하는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교육과 포교를 중문(宗門)의 양대 화두로 삼아 정진하며 희망찬 경인년을 열어가자”는 내용의 신년교시를 내렸다.

법전 종정예하가 신년교시를 통해 밝힌 종단의 핵심 정책 방향은 △수행중흥 확립 △사회적 소통으로 공동선 실현 △전 종도교육 △포교이다. 이를 통해 '불교중흥의 대전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신년교시의 요지이다.

핵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선행과제도 제시됐다. 법전 종정예하는 “신심(信心)과 원력(願力) 그리고 능력(能力)을 갖춘 선재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고 밝히,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들고 종책 실현의 원력과 능력을 지닌 인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재 양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전 종정예하는 신년교시에서 “전 종도에게 평생교육을 통해 범부(凡夫)를 성현(聖賢)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불법(佛法)의 흥망성쇠는 도제불사(徒弟佛事)의 공력(功力)에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법전 종정예하의 신년교시 하교(下敎) 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잘 봉대하여 종풍을 선양하고,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과 사회적 소통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총무원 집행부는 신심과 원력을 갖고 최선을 다해 종정예하의 교시를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종정예하의 신년교시는 제33대 조계종 집행부의 향후 종단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통과 화합으로 불교중흥을 이루겠다는 집행부 방침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신년교시는 교육과 포교를 강조하고 있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교육과 포교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불법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전 종정예하의 신년교시는 올해 종단 방향뿐 아니라, 향후 불교계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지난 7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총무원장 영담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종정예하 신년하례법회에는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지혜스님과 밀운·동춘·진제·명선스님 등 12명의 원로 의원과 총무원장 자승스님, 중앙종회 의장 보선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혜종스님, 불교신문 사장 선묵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 조계종립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 백창기 중앙신도회 명예회장, 심의조 합천군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해인사=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소통 화합으로 시작하는 새해’ 불기 2554년 신년하례법회가 지난 7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사진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퇴설당에서 법전 종정예하(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를 모시고 대적광전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해인사=김형주 기자

종정예하 신년교시 <전문>

시방세계가 금색광명을 만나니 천지만물 모두가 환희로움으로 빛나는 새해이옵니다. 대지(大地)의 굴곡과 증생의 대소(大小)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는 비춤으로 인하여 세계는 한층이더 꽃이요 사해(四海) 역시 한 집안이라는 이치를 또다시 알게 합니다. 그리하여 방랑곡곡(坊坊曲曲) 진진포포(津津浦浦)에 굳게 닫혀 있던 문이 열리면서 화합으로 상생(相生)하는 아름다운 연기(緣起)의 세계가 눈앞에서 현현(顯現)합니다.

우리는 조계종 중지 선양을 통한 수행중흥의 확립과 함께 사회적 소통으로 공동선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의 대전제(大轉機)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신심과 원력 그리고 능력을 갖춘 선재의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도제양성을 위한 교육과 일관성 있는 종책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종도에게 평생교육을 통해 범부(凡夫)를 성현(聖賢)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불법의 흥망성쇠는 도제불사(徒弟佛事)의 공력(功力)에 좌우됩니다.

불조(佛祖)께선 줄락동시(喙啄同時)의 대선지식 역할을 항상 자처하셨습니다. 인천(人天)의 스승을 단련(鍛鍊)시키는 대종장(大宗匠)이셨던 것입니다. 교육은 불교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작발사임을 사부대중은 새해이름에 다시한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승과령(僧科嶺) 너머 동산에 떠오른 불일(佛日)은 더욱 광휘(光輝)하고 선광장(蓮光場) 죽미소리는 청음(淸音)이 되어 삼천大千세계를 일깨웁니다.

선지식의 범등명(法燈明)은 자등명(自燈明)이 되어 시방세계를 밝혔으니 해동승가 천질백년 역사(歷史)는 도도한 장강(長江)되어 천하를 적십니다.

사바세계의 화평(和平)과 증생계의 안락(安樂)을 위하여 조계종도는 간절하면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발원합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교육과 포교를 중문(宗門)의 양대 화두로 삼아 함께 정진하며 희망찬 경인년을 열어가십시오.

성보 도난 예방 당부 호법부, 협조문 발표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지난 7일 부장 덕문스님 명의로 전국 사찰에 ‘성보 도난 및 훼손 예방을 위한 협조문’을 발송했다.

호법부장 덕문스님은 “적극적인 방법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절기를 맞이하여 성보 도난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종교적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부 불지각한 자들에 의한 성보 훼손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번 도난당하거나 훼손당

한 성보는 원상회복이 어렵기에 사전에 절도 및 훼손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면서 “전국 각 사찰에서는 주지스님 및 종무 소임자들이 동절기 성보 도난 및 훼손 예방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법부는 전국 사찰에 발송한 협조문에 ‘성보 도난 및 훼손 예방 수칙’도 첨부했다. △성보 도난 및 훼손 시 현장 보존후 즉각 경찰서 신고 및 호법부 보고 △경내 순찰 활동 강화 △시각장치와 CCTV 점검 △성보에 대한 일일점검 △도난 가능성이 높은 성보를 별도 보관 등이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종단 4개년 발전 로드맵 구체화

총무원, 교구본사주지 의견 청취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의 정책 방향과 청사진을 담은 ‘조계종 4개년 발전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7일 해인총림 해인사 템플스테이 교육관에서 열린 교구본사 주지 간담회에서 향후 정책의 대강(大綱)을 제시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이 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밝힌 ‘발전계획’의 핵심은 △3대 기조 △10대 핵심과제 △23개 주요

과제이다. 3대 기조로는 소통, 화합, 불교중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 10대 핵심 과제와 23개 주요 과제 또한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으로 예상된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여러 차례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다”면서 “본사 주지스님들의 의견을 보

완해 오는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종단에서 마련한 발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법전 종정예하 신년하례법회 후 진행된 교구본사 주지 간담회에는 22개 본사 주지스님이 참석했으며,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혜종스님, 총무원장 영담스님, 기획실장 원담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이 배석했다.

해인사=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社告

소통 화합, 불교중흥 원년

불교신문 수요일자 지면 대폭 개편

불교신문이 경인(庚寅)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걸음을 시작합니다. 한국불교의 현재에 대해서는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호랑이 눈(牛行虎視), 힘겹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도움이 손길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검다리 역할을 하려 합니다. 종단과 종도, 종도와 사회구성원, 사회구성원과 국가, 국가와 종단이 막히지 않고 서로 통한다면 화합과 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해낼 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 시작된다고 봅니다.

창간50주년 특별기획 ‘통합종단에서 개혁종단까지’ 7면

1962년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 출범에서부터 1994년 출범한 개혁종단에 이르기까지 정통 수행승가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종도들의 발자취를 돌아볼 것입니다. 1960년 1월1일 창간된 불교신문이 유일하게 그 역사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기에 ‘불교신문 50년사’는 곧 한국 현대불교 50년사’라 할 수 있습니다.

‘쉬운 불교 재미있는 불교’ 지향

불교,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사회와 소통할 수도 없고 고통 받는 중생과 함께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쉽지만 꼭 알아야 할 부처님의 원음과도 같은 ‘초기불교’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엮은 경건이야기를 교리·선(禪) 지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8면 **각각스님의 초기불교산책** : 이미령의 백유경이아기 사찰에서 꼭 지켜야 할 예절
9면 **무비스님의 직지** : 승강스님의 마음으로 보기 광전스님의 염불선이야기

앞서가는 교구본사를 가다 10~11면

직할교구 본사 조계사를 비롯해 지역불교 발전을 이끌고 있는 전국의 24개 교구본사의 활동을 조명하는 한편 불교신문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본지가 힘을 보태려 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해를 거듭해 어느덧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같이 우리의 몇몇 교구본사 역시 적박한 여건 때문에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본사는 모범도량으로, 힘이 부족한 본사에는 본지가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Hello! Dharma School’ 16면

어린이들이 궁금해 하는 불교에 대한 모든 것을 영어로 담아냅니다. 불교공부도 하고 영어공부도 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습니다. 본지의 어린이불교신문 코너를 통해 8개월 여 동안 연재돼 온 ‘헬로 달마 스쿨’의 기초자료는 이미 교재와 학생용 워크북, 지도 교사용 영어번역 및 설명지도안 총 3권으로 발행될 만큼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오산 대각사 영어교재편찬 위원회가 본지와 공동으로 본란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동국대병원 의료진이 집필하는 ‘건강칼럼’ 17면

‘국악신동’ 송소희 양 사찰 자선공연 화제 6면

謹賀新年
불기 2554년 / 경인년

庚寅年

새해 福 많이 나누세요

조실 보광 혜정 회주 진불장 혜성 부조실 경하 현성
주지 선묵 혜자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동광

청담문도회, 청담장학문화재단, 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학교법인 청담학원, 강북청소년수련관,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관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전화 : (02)993-3161 ~ 3

팩스 : (02)993-3164

홈페이지 : www.dosunsa.or.kr